

# 광주산 세탁기 美수출 발목 잡하나

美무역위, 한국산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  
삼성 11% 추가 관세…“WTO 제소할 것”

광주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각) 한국 가전업체들의 가장 용 세탁기에 대해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승인했다. 부과 결정이 최종 마련되면서 삼성과 대우일렉 등 지역 가전업체는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ITC는 이날 위원 6명의 전원일치 판정으로 삼성과 대우, LG전자 등 3

개사가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로 말미암아 자국 내 관련 업체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해 12월20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한국에서 생산한 가장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저가 판매되고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대우일렉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

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일렉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 등을 부과했다. 삼성 세탁기의 경우 9.29%의 반덤핑관세에 1.85%의 상계관세 등 총 11.14%의 관세가 불게 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연간 매출액은 3~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액 절반 가량은 협력업체 매출로 이어진다. 삼성 층은 추가 관세에 대해 현지 소비자에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가에 반영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와 수출량 감소 등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의 부당함 등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세계 무역기구(WTO) 등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 효율을 높이고, 원가 절감, 신규 모델 도입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일렉 광주공장은 고관세(82.41% 반덤핑과세)에 수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이곳 관계자는 “광주공장 전체 매출의 40% 가량이 세탁기이지만 북미 시장에서 차지하는 둑이 0.3%에 불과하다”며 “다른 모델 수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 통관지원

광주세관 24시간 지원팀 가동 원스톱 처리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1일간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재수용품·생활 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을 위한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이 기간중에는 공휴일·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상시 수출입통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재수용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전수입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수출화물은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해 적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업체의 설 명절 자금수

요에 따른 환급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 동안 근무시간을 20시간까지 연장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환급처리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세관은 이 기간동안 전산으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당일 지급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건도 첨단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에 심사하는 선지급 후심사 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특히 수출입업체·관세사·보세운송업자 등 관련업체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특별지원기간 중 수출입업체의 통관에 발생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사면 설제수용품 증정

### 내달 16일까지 이벤트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24일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전국 타이어 프로 매장 및 일부 대리점에서 마제스티 솔루션 등 프리미엄 타이어 및

SUV용 타이어를 2개 이상 구매하면 올리고당, 부침가루 등 설제수용품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행사다. 기간 중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30만원 이상 1만원, 50만원 이상 2만원 청구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 타이어 홈페이지(kumhotire.co.kr)에 나와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원고엔저… 일본차 반격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 세계 주요 시장에 서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원고엔저 현상이 이어지면 일본 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무대에서 도요타·혼다 등 일본 업체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길월동 혼다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들에게 차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쭉!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의실용책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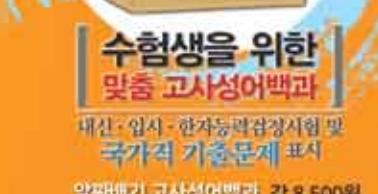
- 알파벳 여행 회화 시리즈
-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 mp3 파일 무료다운
- 상황별 핵심 문법과 활용 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팀과 응용회화로 구성



- 한자능력 검정 시험 시리즈
- 대능한자연구회
- 교수법 한자색인 다양화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작년 성장률 2%…3년만에 최저

### 전망치 0.4%P 미달…내수·수출 동반 부진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률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0.3%)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08년(2.3%) 이후 4년 만에 다시

2%대로 주자앉았다.

성장을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투자부족, 수출 및 내수 부진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내수부진이 계속된 영향으로 설비투자

는 1.8% 감소했다. 설비투자 축소도 2009년(-9.8%) 이후 처음이다. 건설

투자는 부동산침체로 건물건설이 뜻한데다가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 마

무리로 토목건설의 일감이 떨어져 1.5% 줄었다.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3.7%, 수입은 2.3% 늘었지만 전년도 증가율(0.8%)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나마 민간과 정부가 버팀목이었다. 민간소비는 2010년(4.4%), 2011년(3.6%)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지만 1.8% 늘어 그대로 선전했다. 정부 소비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2009년(5.6%) 이후 가장 많은 증가율(3.6%)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2.3% 성장했다. 교역조건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실질 무역순실 규모가 65조8천억원에서 64조5천억원으로 줄어들면서 GDI 성장률이 웃돌았다.

작년 4분기 실직은 지출면에서 민간소비(0.8%) 증가에도 수출(-1.2%) 및 건설투자(-1.3%)가 감소로 0.4% 성장에 그쳤다. 설비투자(-2.8%)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 “공무원 부러워”…직장인 체감 정년퇴직 연령 48.8세

#### 잡코리아 601명 설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직장인이 느끼는 정년퇴임 평균 연령은 50세가 제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작년 12월 14~31일 국내에 소재한 기업의

직장인 60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정년퇴임 연령은 만 48.8세(남성 51.5세, 여성 46.4세)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별로 공기업이 52.6세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 49.0세, 중소기업 48.2세, 외국계 기업 47.9세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 안정성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3.2%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별로 중소기업 79.5%, 외국계 기업 72.1%, 대기업 59.5%, 공기업 49.2% 순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가장 부러운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52.7%로 1위를 차지했다.

## 한국농공상中企연합회

### 오늘 광주서 창립총회

전국 300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한국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전국 연합회’가 광주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4일 (사)한국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연합회가 25일 오후 2시 중기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관로개척,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농수산물에 IT, BT, NT, CT 기술을 융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광주·전남지역은 112개 업체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내신·입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적 기출문제 표지

알파벳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